

어음



발음

[어음]

어원

<어험<신헌>

표준국어대사전

고려대한국어대사전

우리말샘

예문 열기 ▾

1. 명사 경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
서 치를 것을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그 지급을
위탁하는 유가 증권. 약속 어음과 환어음이 있다.

↖ 환어음.

즉 어음은(아무나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) 해당기업의 재무적 상황이나 상태가 확실해서 믿을만할 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 ^{신용이 좋은 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수 있음.} ^{⇒ 이에 따라 과거에는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.}
 현데 당 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아직은 발전이 크게 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지만 그에 비해 금융 시장은 덜 발달이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금융상품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건전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어음을 마구 남발한 것입니다.

Cp(기업 어음)을 찾아보다가 어음이 뭔지 몰라서
기업 어음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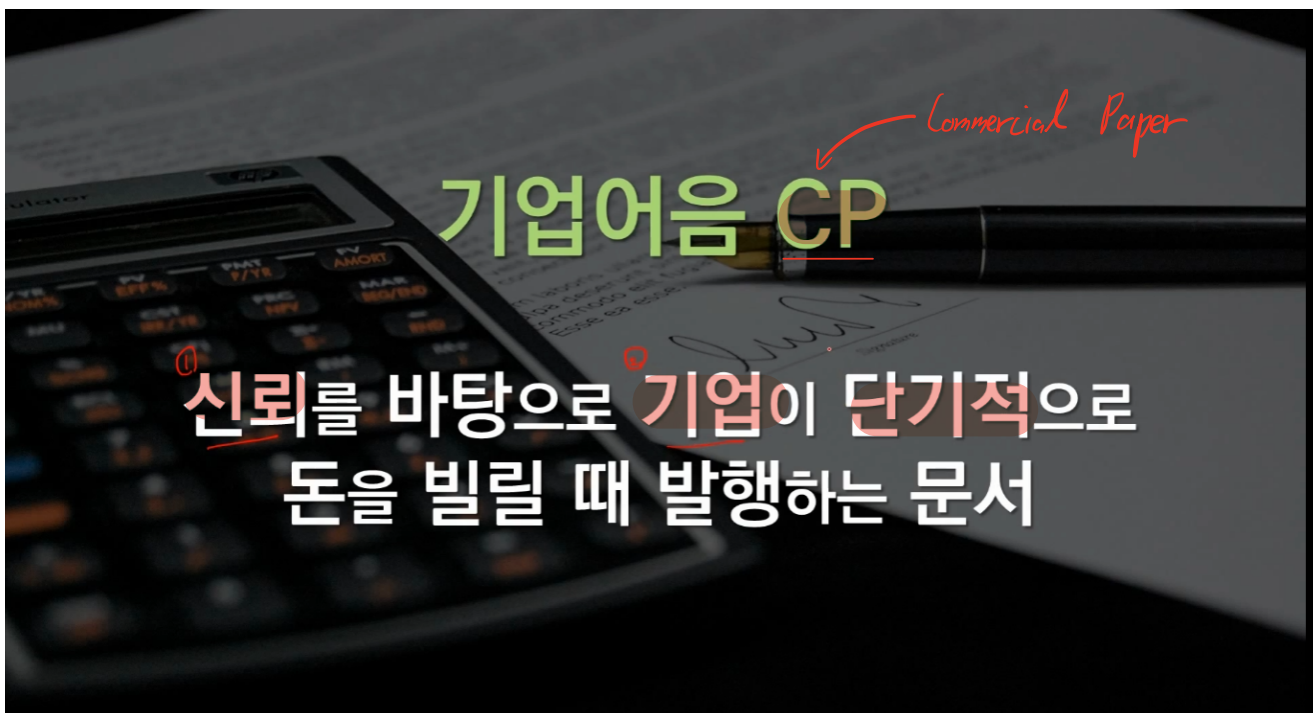
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

=> CP는 기업이 단기자금 즉, 3개월, 6개월 정도
돈을 빌려써야할 때 단기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발
행하는 어음을 가리켜 기업어음이라고 하며, 진성
어음(실제로 어음이라고 하는 것)과는 다르다고
보셔야 합니다.

어음은 [몇 년 몇 월 몇 일에 얼마를 어느 은행에서 갚겠다고 적어 놓은 특별한 쪽지]라고 보면 됩니다. 하지만 어음이 차용증서와는 다릅니다. 차용증서가 개인간의 거래인데 비하여 어음은 중간에 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이죠. >

↑ **어음 수 받은 문서, 채권 아님!**

어음은 수표와도 다릅니다. 수표는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만 발행할 수 있지만 어음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상관없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, 수표는 발행되는 그 순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찾아가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, 어음은 어음쪽에 적혀있는 날 은행에 찾아가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



~ 원천업체(기업)가 발행한 CP

— 어음 수취인

헌데 이 CP를 가지고 있는 하청업체가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으면, 원래 받아야 할 CP 금액에서 일부 할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원래 CP를 만기까지 들고 있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, 만기까지 기다릴 상황이 못되어서 95만원 정도에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은행이 이 CP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만약 하청업체가 은행에 CP를 팔면, 이제는 기업이 은행에게 만기에 돈을 지급해야되는 것이 됩니다. 하청업체는 더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구요.